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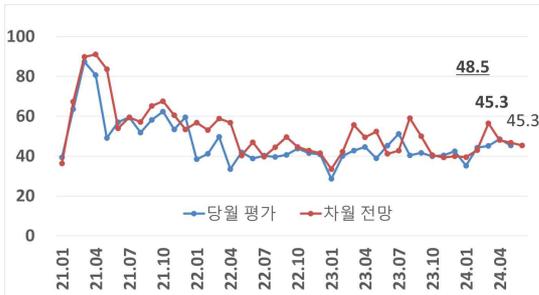
I. 2024년 5월 건설경기평가 및 6월 전망

■ 5월의 경기평가는 전월과 달리 소폭 하락, 차월인 6월은 금월 수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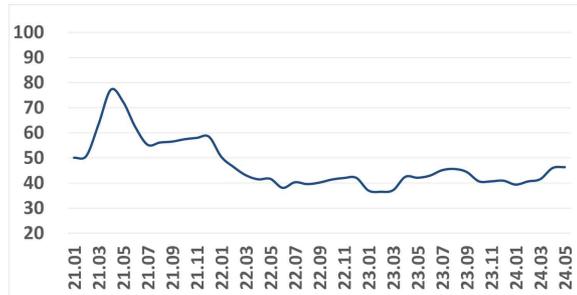
- 5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45.3으로 전월(48.5) 대비 소폭 하락했으며(-3.2p), 6월(45.3)에도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경영애로사항으로는 공공공사의 입찰건수 축소, 인건비 상승 및 기술품질 저하, 중대 재해법 관련 대응, 전자카드 사용의 어려움 등이 지적됨.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2.6(35.3→42.6)으로 전월과 달리 상승했는데(+7.3p), 이와 달리 지방은 46.5(54.3→46.5)로 하락함(-7.8p).

〈표-1〉 2024년 5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6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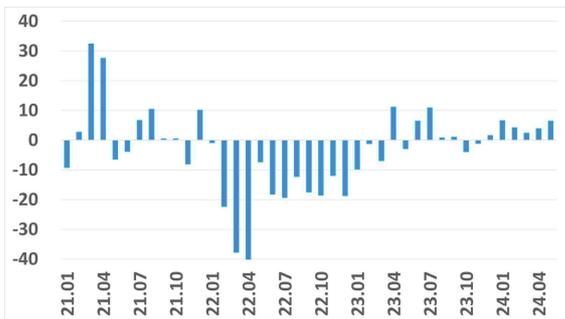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4년 5월 평가	45.3	38.9	42.6	46.5	36.7	53.6
2024년 6월 전망	45.3	41.1	48.9	43.9	40.0	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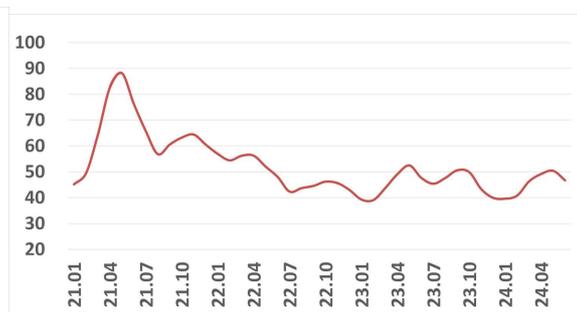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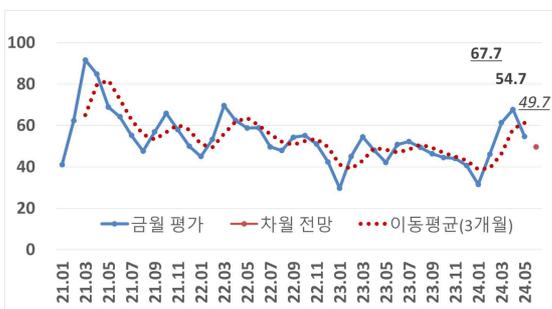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전월과 달리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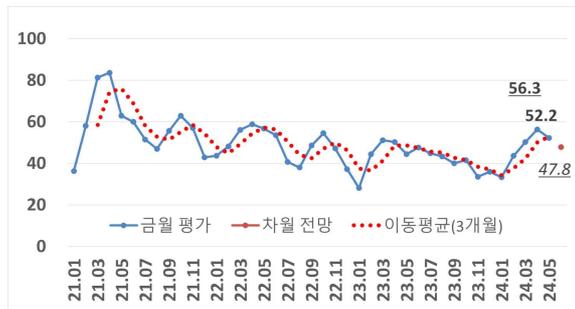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54.7(67.7→54.7)로 전월 대비 크게 하락했으며(-13.0p), 하도급 수주도 52.2(56.3→52.2)로 전월 대비 하락함(-4.1). 수주현황과 관련해 일부 응답업체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을 비판하며 '전문건설업 대 혼란의 시기'라고 표현함.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76.5→66.0)이 전월과 달리 하락했으며(-10.5p), 지방(63.8→50.0)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음(-13.8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68.6→63.8)에서 소폭의 하락을(-4.8), 지방(50.9→47.4)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3.5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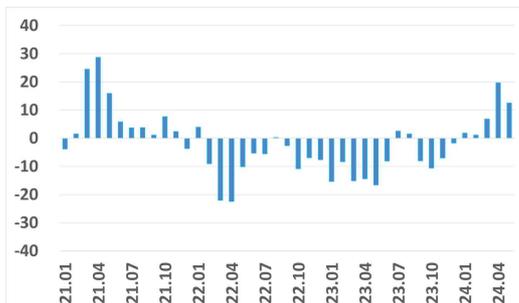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4년 5월 평가	54.7	42.2	66.0	50.0	73.3	55.4
	2024년 6월 전망	49.7	51.1	61.7	44.7	63.3	55.4
하도급 수주	2024년 5월 평가	52.2	44.4	63.8	47.4	76.7	53.6
	2024년 6월 전망	47.8	48.9	51.1	46.5	53.3	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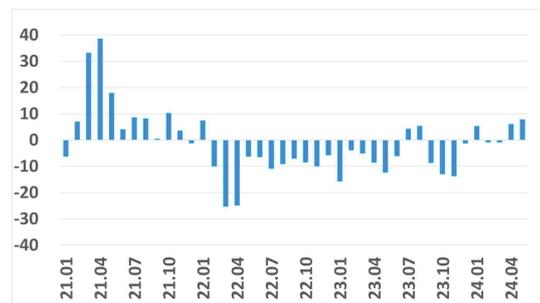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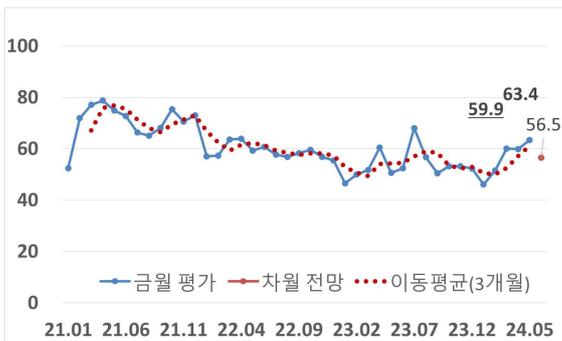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소폭 개선,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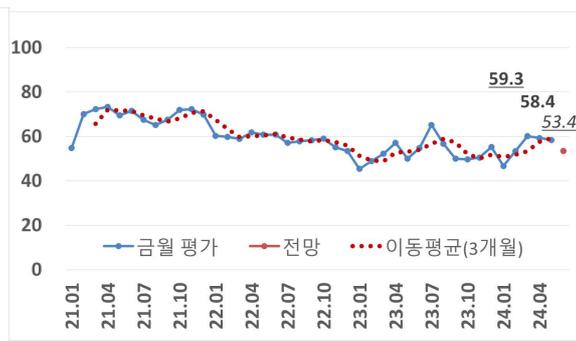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63.4(59.9→63.4)로 전월보다 소폭 개선되었지만 업황의 반전을 보일 정도는 아니며(+3.5p), 차월(56.5)에는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6.9p). 일부 응답에서는 기능인력과 자재수급에 더해 공사대금 수금까지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49.0→57.4)은 상승(+8.4p), 지방(64.7→65.8)은 차이가 미미했음(+1.1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58.4(59.3→58.4)로 전월과 유사했으며(-0.9p), 차월(53.4)은 일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5.0p). 적지 않은 응답업체들이 고금리와 인건비·자재가격 상승을 연계해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을 토로함.
 - 수도권(52.9→53.2)은 전월과 유사(+0.3p), 지방(62.1→60.5)도 같은 양상이었음(-1.6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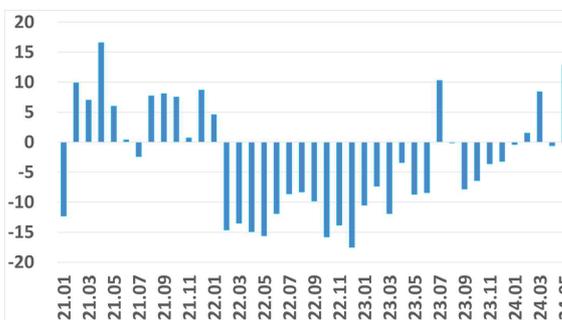
구분	구분	총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4년 5월 평가	63.4	50.6	57.4	65.8	60.0	71.4
	2024년 6월 전망	56.5	57.8	55.3	57.0	53.3	62.5
자금조달	2024년 5월 평가	58.4	50.0	53.2	60.5	60.0	62.5
	2024년 6월 전망	53.4	53.9	48.9	55.3	50.0	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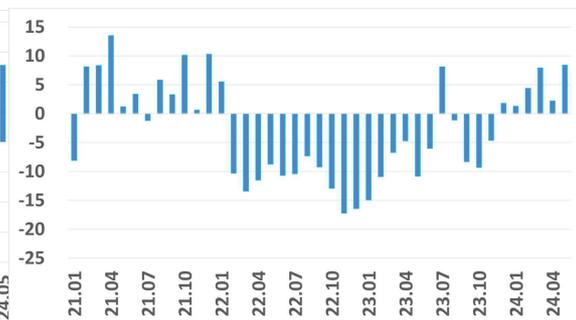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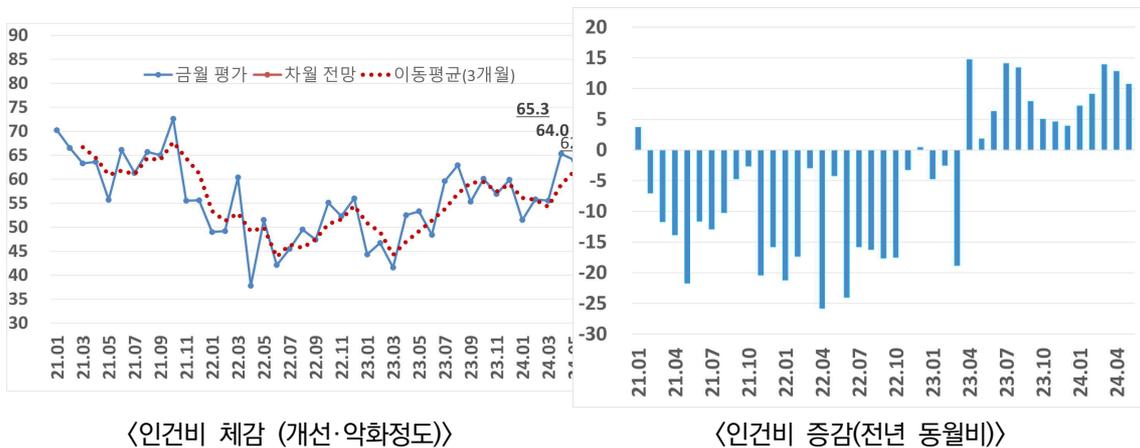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은 전월 수준, 기능인력수급은 소폭 하락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64.0(65.3→64.0)으로 전월의 수준이었으며(-1.3p), 전년 동월(53.3)보다 높은 수준임(+10.7p). 이는 전년의 저조한 평가치에 대한 기저효과가 꾸준히 지속된 결과이며, 여전히 인건비는 자재비와 더불어 업계의 고민으로 자리잡은 상황임.
 - 수도권(60.8→46.8)은 전월과 달리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14.0p), 지방(67.2→71.1)은 전월에 이어 소폭 상승함(+3.9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²⁾는 72.7(77.2→72.7)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4.5p), 역시 전년 동월(61.7)보다 높은 수준임. 기능인력의 추가공급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는 작년과 비교해 조사업체들이 참여하는 건설현장의 숫자가 감소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음.
 - 수도권(74.5→57.4)은 전월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크게 하락했지만(-17.1p), 지방(78.4→78.9)은 전월의 수준이 유지됨(+0.5p).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4년 5월 평가	64.0	53.3	46.8	71.1	36.7	80.4
	2024년 6월 전망	67.7	58.9	61.7	70.2	46.7	82.1
인력수급	2024년 5월 평가	72.7	61.7	57.4	78.9	50.0	87.5
	2024년 6월 전망	72.7	66.1	59.6	78.1	50.0	83.9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2)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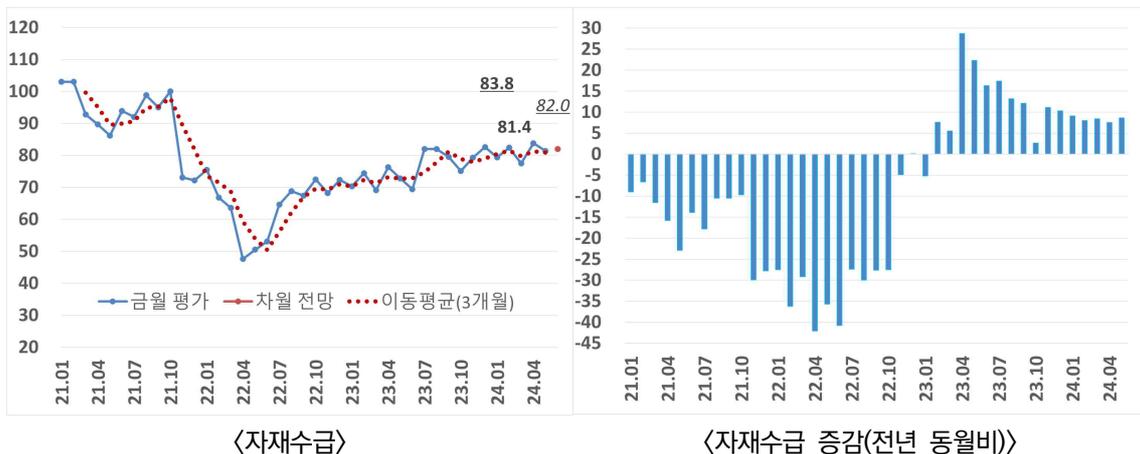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수급³⁾)

■ 자재비지수는 소폭 상승, 자재수급지수는 미미한 하락

- 자재비⁴⁾ 경기실사지수⁵⁾는 57.1(50.9→57.1)로 소폭 상승했으며(+6.2p) 차월(60.2)에도 소폭의 상승이 전망됨(+3.1p). 이는 착공현장의 감소 등으로 자재수요가 일부 줄어들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재비상승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수도권(47.1→40.4)은 전월에 이어 하락했으며(-6.7p), 지방(52.6→64.0)은 큰 폭으로 상승함(+11.4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⁶⁾는 81.4(83.8→81.4)로 전월과 일부 차이를 보였으며(-2.4p) 차월(82.0)에도 유사할 것으로 전망됨(+0.6p).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일부 업체가 자재수급의 어려움을 지적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72.5→70.2)은 전월과 소폭의 차이를 보였으며(-2.3p), 지방(88.8→86.0)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남(-2.8p).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4년 5월 평가	57.1	45.6	40.4	64.0	33.3	76.8
	2024년 6월 전망	60.2	57.2	55.3	62.3	46.7	78.6
자재수급	2024년 5월 평가	81.4	72.8	70.2	86.0	60.0	91.1
	2024년 6월 전망	82.0	78.9	70.2	86.8	63.3	89.3



- 3)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 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드물기 때문임
- 4)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 5)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 6) 코로나 이전 시기의 지수는 대략 100정도 수준이었음을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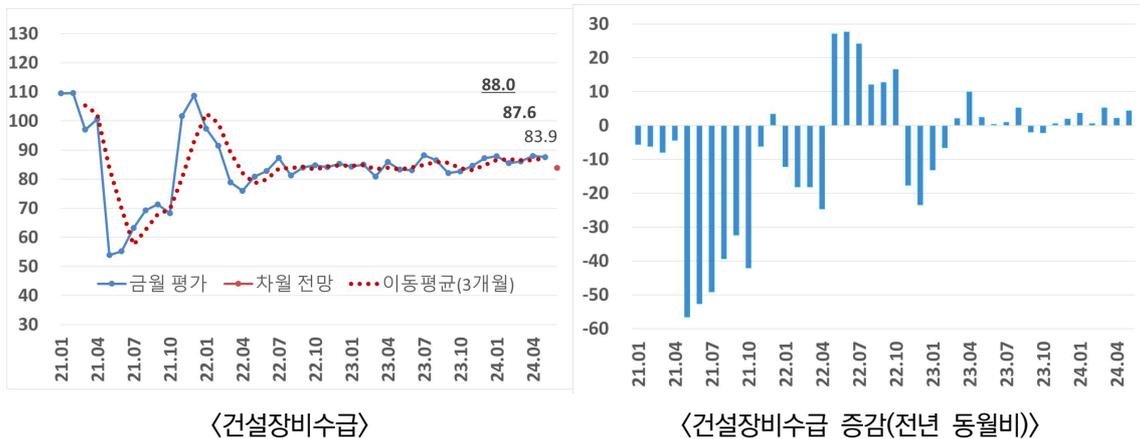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와 장비수급지수는 전월의 수준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67.7(65.9→67.7)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1.8p), 차월(69.6)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1.9p). 전년 동월(61.7)과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최근 들어 유지되고는 있으나,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수도권(62.7→59.6)은 전월에 이어 소폭의 하락이 지속된 반면(-3.1p), 지방(67.2→71.1)은 소폭이지만 상승세가 이어짐(+3.9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87.6(88.0→87.6)으로 전월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0.4p), 차월(83.9)에는 소폭의 하락이 전망됨(-3.7p).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금월에는 일부 업체에서 건설장비의 수급이 어렵다는 응답이 나타남.
 - 수도권(80.4→78.7)은 전월의 수준을(-1.7p), 지방(91.4→91.2)도 마찬가지로 전월의 수준이 유지됨(-0.2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 임대료 체감	2024년 5월 평가	67.7	61.7	59.6	71.1	53.3	80.4
	2024년 6월 전망	69.6	65.6	70.2	69.3	60.0	82.1
장비수급	2024년 5월 평가	87.6	83.3	78.7	91.2	70.0	98.2
	2024년 6월 전망	83.9	82.2	76.6	86.8	66.7	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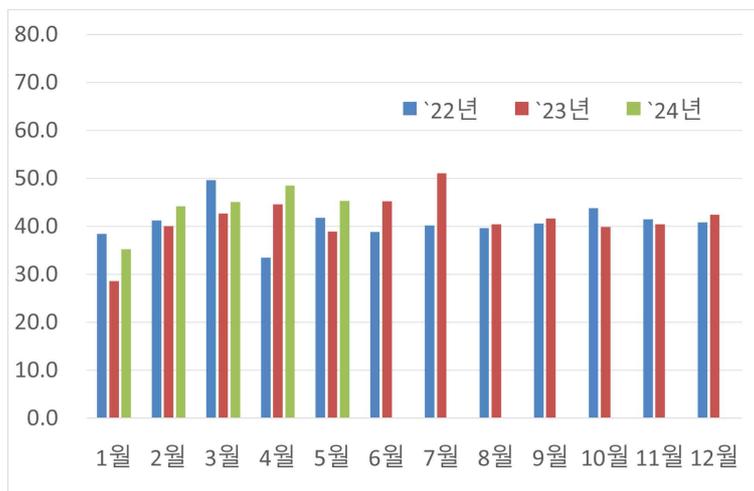


참고: 2024년 5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45.3	38.9	42.6	46.5	36.7	53.6	
	차월 전망	45.3	41.1	48.9	43.9	40.0	53.6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54.7	42.2	66.0	50.0	73.3	55.4
		차월 전망	49.7	51.1	61.7	44.7	63.3	55.4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52.2	44.4	63.8	47.4	76.7	53.6
		차월 전망	47.8	48.9	51.1	46.5	53.3	57.1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63.4	50.6	57.4	65.8	60.0	71.4
		차월 전망	56.5	57.8	55.3	57.0	53.3	62.5
	자금조달	금월 평가	58.4	50.0	53.2	60.5	60.0	62.5
		차월 전망	53.4	53.9	48.9	55.3	50.0	62.5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64.0	53.3	46.8	71.1	36.7	80.4
		차월 전망	67.7	58.9	61.7	70.2	46.7	82.1
	인력수급	금월 평가	72.7	61.7	57.4	78.9	50.0	87.5
		차월 전망	72.7	66.1	59.6	78.1	50.0	83.9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57.1	45.6	40.4	64.0	33.3	76.8
		차월 전망	60.2	57.2	55.3	62.3	46.7	78.6
	자재수급	금월 평가	81.4	72.8	70.2	86.0	60.0	91.1
		차월 전망	82.0	78.9	70.2	86.8	63.3	89.3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67.7	61.7	59.6	71.1	53.3	80.4
		차월 전망	69.6	65.6	70.2	69.3	60.0	82.1
	장비수급	금월 평가	87.6	83.3	78.7	91.2	70.0	98.2
		차월 전망	83.9	82.2	76.6	86.8	66.7	94.6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최근 3년간의 SC-BSI 비교〉